

AN, 태광 아크릴섬유 화재 “비상”

복구기간 장기화시 원료 가격하락 불가피 ... 아크릴섬유는 영향 없어

1월29일 태광산업 Acrylic Fiber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이 단기간에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련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산업은 국내 최대의 Acrylic Staple Fiber 생산기업으로 국내시장을 한일합섬과 양분하고 하고 있는데, 태광산업의 생산능력은 1일 217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1월29일 화재는 1시간만에 진화돼 아크릴섬유 재고와 생산라인 일부가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450평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AN(Acrylonitrile) 관련설비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프로필렌(Propylene) 가격강세에 비해 그나마 인상폭이 적었던 AN 가격하락이 우려됐으나 태광산업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AN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AN은 최근 프로필렌 가격강세로 마진율이 크게 떨어져 동서석유화학이 No.3 플랜트(20만톤)의 가동률을 90%로 조정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Acrylic Staple Fiber를 생산하고 있는 한일합섬 관계자는 “Acrylic Staple Fiber가 비수기 시즌으로 태광산업 화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Acrylic Staple Fiber는 2002년 2/4분기 이후 국내수요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Acrylic Staple Fiber 1톤 생산에는 0.95톤의 AN이 필요해 AN 가격과 Acrylic Staple Fiber 가격은 절대 상관관계에 있으나 최근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섬유시장 침체와 염색가공기업들의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원료인 AN 가격상승분이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크릴섬유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격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광산업은 프로필렌(25만톤), AN(25만톤), Acrylic Staple Fiber(7만8000톤)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갖추었으며, Acrylic Staple Fiber에 들어가는 AN은 대략 7만4000톤이다.

한편, 태광산업과 Acrylic Staple Fiber를 과점하고 있는 한일합섬도 12월6일 대구 북구 김단동 한일합섬 대구공장 원사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콘크리트 슬래트 건물 6000여평 가운데 내부 4500여평과 보관중이던 아크릴원사, 부직포 완제품 등 2700톤과 합성섬유 생산기계 등을 불태워 1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2/03>